

大韓帝國時代 學部の圖書編纂 및 刊行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Compilation and Publication of the Hakbu in the Empire of Korea Dynasty

이 철 찬 (Cheol-Chan Lee)**

초 록

본 연구는 대한제국시대 학부의 도서 편찬 및 간행에 대하여 밝히고자, 문헌상의 기록과 현존하는 실물을 조사하여 이들을 형태서지학적으로 분석하고 특징과 내용을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으며,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사실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에서 편찬 간행한 도서의 수는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63종이었다. 둘째, 학부의 도서 간행은 연도별로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판종은 활자본이 84.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신연활자본이 35종으로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용지 및 장정은 학부 초기에는 모든 도서에서 한지 한장본을 사용하였다. 다섯째, 도서의 가격은 지금의 도서 가격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가격이었다. 여섯째, 학부에서 편찬 간행한 도서 중 번역서는 6종이었다. 이 연구 결과는 학부에서 편찬 간행한 도서에 대한 종합적인 것으로 이후 관련 연구의 토대가 될 것이다.

ABSTRACT

In this study, in order to clarify the unsystematic compilation and publication of books at the Hakbu in the period of Empire of Korea, I aimed to investigate the distinctive features and contents by comparing the record in old literature and with the existing original, and then by analyzing them in the form of bibliography. The summarized finding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 (1) The number of the books compiled /published was 63 types according to the findings until now. (2) It showed that the printing/compiling book in the Hakbu was differently carried out annually. (3) An 84.1% of the published books were printed by using printed edition, and Sinyeon printed edition was classified into 35 types of books, accounted for the most percentage among the printed books. (4) Most of books were bound in type of Thin-cover book using Hanji (Korean paper hand-made from mulberry trees). (5) The price of books was more expensive than that of contemporary books. As time goes by, the price of a book published becomes cheaper. (6) There were 6 types of translated books in the books compiled. As comprehensive study about compiled /published books at the Hakbu, this research will form the base of related research.

키워드: 대한제국시대, 학부, 도서편찬, 도서간행, 형태서지학

Korea Dynasty, Hakbu, Publication, Compilation, Bibliography

* 본 연구는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을 축약·정리한 것임.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도서관 사서(cclee@pusan.ac.kr)

논문접수일자 : 2016년 8월 25일 논문심사일자 : 2016년 9월 11일 게재확정일자 : 2016년 9월 19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7(3) : 321-344, 2016.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6.27.3.321]

1. 緒論

1.1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高宗 31年(1894) 갑오경장으로 인하여 관제가 개혁되어, 궁내부와 의정부 아래에 8개 아문을 두어 왕정체제를 민주체제로 개혁하기 시작하였다. 그 가운데 학부아문은 흥범 14조에 이어 교육입국의 뜻을 밝힌 교육조칙을 반포하고 종래의 과거제도 중심의 교육을 지양하고 실용적·과학적 학문의 추구하고 지·덕·체의 균형교육에 치중하였다.

高宗 32年(1895) 4월에는 학부아문을 학부로 개칭하고 각종 학교의 관제를 공포함과 동시에 소학교를 서울과 지방에 잇달아 설립하였다.

이에 따라 학부에서는 高宗 32年(1895) 4월부터 隆熙 4年(1910) 경술국치에 이르기까지 정치·사회·역사·지리·기예·도덕 등 여러 분야에서 근대화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도서를 개편하여 널리 공급하여 주는 일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러한 각종 도서의 간행은 새로운 지식과 사상을 전달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일본의 탄압을 받으면서도 민족의식을 이끌어 오던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모습은 당시에 편찬·간행된 각종 도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도서는 그 시대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필요로 했고, 또한 국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지식과 사상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으로 볼 때 특히 학부가 존속했던 16년간은 새로운 개혁이 시작되는 격동의 시기로 도서출판의 역사에서도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모든 도서는 그 시대와 사회의 소산이다. 그러므로 도서는 그 시대와 사회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특히 대한제국시대는 우리나라가 물밑 듯이 밀어닥쳐오는 서구문화를 받아들인 시대였고, 국권을 강탈당하는 와중에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하던 시기였다. 따라서 대한제국시대의 각종 도서들은 우리나라 근대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간 대한제국시대의 도서 편찬 및 간행에 대하여는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논급이 있었을 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진 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한제국시대 학부에서 편찬 간행된 도서들을 상세히 조사·분석하고 아울러 형태적 특징과 내용을 고찰함으로써 학부에서 편찬·간행된 도서의 전모를 밝히고자 한다.

1.2 研究의 內容 및 方法

이 연구의 범위는 대한제국시대 학부에서 편찬 간행한 도서로 한정하였으며, 筆節目, 講議書 등의 문서와 학부자체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문서철인 《學部職員履歷書》(1907), 《學部編輯局書冊目錄》(1907)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조사범위는 학부에서 편찬 간행한 도서의 서지사항이 비교적 정확하게 기입되어 있고, 실물의 확인이 용이한 13개 기관(〈표 1〉 참조)으로 하였으며, 문헌에는 기록되어 있으나 실물 확인이 되지 않은 3종에 대해서는 목록만 제시하고 내용의 분석은 제외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문헌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37종 (김봉희 1999: 강운호 1973)과 장서목록을 통하여 실물을 확인한 26종 등 총 63종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조사를 통하여 학부의 기능과 역할 등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선행연구를 조사하였다.

둘째, 전국 대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장 현황을 조사하였다.

셋째, 현황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도서는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복사본 등의 실물을 확보하였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학부 편찬 간행도서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1.3 先行研究

대한제국시대의 도서편찬이나 간행에 관련된 연구는 비교적 여러 분야에서 연구되었으므로 교과서 간행과 정책에 대한 연구, 교과용도서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로 구분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교과서 간행과 정책에 대한 연구로 이중한(2001)은 근대적인 교육체제가 확립된 1895년부터 1910년 경술국치까지의 교과서 간행종수를 560여 종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학부에서 얼마나 편찬 및 간행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하였다.

정의성(1990)은 개화기에 간행된 200종의 도서를 선정하여 주제별로 분석해 본 결과, 간행율이 가장 높고 영향을 많이 준 것은 역사이며, 다음으로 순수과학, 사회과학, 어학, 지리, 기술과학, 윤리 순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김봉희(1999)는 개화기 당시 서적문화 전반의 발전과정을 문헌조사와 실사를 통하여, 개화기 서적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나, 그중 학부에서 편찬 간행된 도서는 28종에 불과하였고 대체로 서명만 간단히 제시하였다.

강운호(1973)는 隆熙 2-3년에 걸쳐 학부에서 편찬 간행한 도서 9종을 대상으로 그의 발매책수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교과용도서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는 박봉배, 이승구(2001)가 우리나라의 근대교육은 어떻게 도입 전개되었고 당시의 교육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으며, 교과서는 어떻게 편찬되고 일본의 영향은 어떻게 받았는가를 세 시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김용화(1990)는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는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어떻게 변천하여 왔는가를 연구하면서, 이 시기의 도서 편찬은 정식으로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하게 되었으나 교사는 도서 편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로 남권희(1989)는 《學部編輯局書冊目錄》을 중심으로 서양문물의 유입이 분류체계에 미친 영향을 포괄적으로 다루었는데, 학부편집국의 장서는 홍문관을 비롯한 여러 소장처에서 옮기거나 자체에서 편찬 간행된 교과서류가 주를 이룬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한제국시대의 도서편찬이나 간행에 대하여는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논급이 있었을 뿐, 학부 편찬 간행자료 전반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한제국시대 학부에서 편찬 간행된 도서들을 상세히 조사·분석하여 형태

적 특징 및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학부에서 편찬
간행된 도서의 전모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2. 學部の 設立 및 組織

2.1 學部の 設置 過程

학부는 대한제국시대의 학부 행정을 관장하
던 관청으로써 高宗 32年(1895)에 설치되어 隆
熙 4年(1910) 경술국치에 이르기까지 존속하였
으며, 1894년 예조의 소관업무를 계승하였던 학
부아문을 개칭(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한 것
으로 오늘날의 교육부에 해당한다.

소속부서로는 대신관방, 학무국, 편집국 등
이 있었고 관상소, 성균관, 사범학교, 중학교
등을 부속기관으로 관할하였다. 학부대신은 임
금이 직접 임명하는 칙임관으로 학정,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 지휘 감독하였다. 학부협관
도 칙임관으로 임명되어 대신을 보좌하여 학부
의 사무를 관장하고 각 부서의 사무를 감독하
였으며, 국장은 임금이 직접 임명하는 칙임관
이나 주무대신이 임금에게 아뢰어 승낙을 받아
임명하는 주임관으로 임용되었다. 주사는 주무
대신이 위임을 받아 임명하는 판임관으로 임용
되었다.

학부의 대신관방에서는 공립학교 직원의 신
분에 관한 사항, 교육의 검정에 관한 사항, 학부
소관의 경비 및 제 수입의 예산, 결산, 회계에
관한 사항, 학부소관 관유재산 및 물품장부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였다. 학무국에서는 소
학교 및 학령아동의 취학에 관한 사항, 사범학
교에 관한 사항, 중학교에 관한 사항, 외국어학

교 및 전문학교, 기술학교에 관한 사항, 외국에
파견하는 유학생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였다.
편집국에서는 교과도서의 편집·번역 및 검정
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한국정신문화연구
원 1991).

학부의 변천은 자체의 조직 이외에 관상소와
성균관, 한성사범학교, 외국어학교가 수반되어
있었으며, 1905년 을사조약 이후에는 일인의 진
출이 두드러져 교과서의 자주적인 출판과 보급
활동이 단절되었고(이종국 1987) 1910년 경술
국치 이후에는 조선총독부의 학무국을 중심으로
교육행정기관이 설치·운영되고 서당규칙의 제
정 및 도서검정 등 각종 제도가 일본인에 의하여
통제되었다(한국교육사연구회 1984).

2.2 學部の 組織과 機能

1895년 4월 21일에 밝힌 관보의 관청사항에
는 분과규정이 있는데, 제6조에 편집국에 관한
사항이 있다. 편집국에서 수행되었던 기능은 대
체로 다음과 같다(박봉배, 이승구 2001).

1. 교과용도서의 번역에 관한 사항
2. 교과용도서의 편찬에 관한 사항
3. 교과용도서의 검정에 관한 사항
4. 도서의 구입,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서의 인쇄에 관한 사항

이를 보면, 이때 교재 생산의 규정이 만들어
졌으며, 당시의 교재 개발은 번역도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선진국가의 교과서를 모방
하는 형식으로 편찬되고 간행된 것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술국치 이후 곧 1910년 10월 1일에 바뀌어

진 조선총독부의 관제는 내무부 아래에 서무과, 지방국, 학무국이 있고 학무국내에 학무과, 편집부로 나뉘어져 학무과에서는 도서관과 학교 등을 관장하고 편집부에서는 교과용도서의 편집, 공포, 검정 및 인가에 관한 사항과 민력에 관한 사항으로 축소되었다. 이러한 기능들도 일제의 조선합병 책동으로 말미암아 여러 기능 중에서도 특히 교과서의 편찬과 검열을 강화시켜 반정부적 출판물에 대하여 통제하는 등 사상통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황성신문 1910, 3434호).

3. 學部の圖書編纂 刊行 狀況

3.1 學部の圖書編纂 刊行 狀況

학부에서 편찬 간행한 도서의 주제는 한국십진분류법의 주류표를 사용하였으며, 세부 주제는 학부편집국에서 간행한 《教科用圖書一覽》중 학부 인가 교과용도서의 과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학부에서 편찬 간행된 도서 63종을 주제, 서명, 편·저자, 간행시기, 청구기호를 중심으로 표를 작성하면 <표 1>과 같다.

<표 1> 學部 編纂 刊行 圖書의 調査 一覽表

主題	細部主題	書名	編·著者	刊行時期	請求記號
總類	總類	教科用圖書一覽(1冊)	學部編輯局	隆熙 4(1910)	國立朝12-B88
"	"	學部職員錄(1冊)	學部編輯局	隆熙 2(1908)	서울대일석371.1
哲學	修身	夙惠記略(1冊)	學部編輯局	高宗 32(1895)	奎6319
"	"	小學讀本(1冊)	學部編輯局	高宗 32(1895)	奎古2181-3
"	"	開蒙彙編(1冊)	學部編輯局	建陽 1(1896)	奎古0320-28
"	"	西禮須知(1冊)	學部編輯局	光武 6(1902)	奎6072
"	"	普通學校學徒用修身書(4卷4冊)	學部編輯局	隆熙 2(1908)	韓國學375.419
社會科學	法律	公法會通(10卷3冊)	步倫 著 丁題良 譯	建陽 1(1896)	奎中2068
"	經濟	經濟通論(5卷1冊)	學部編輯局	隆熙 2(1908)	嶺南大古凡320.1
"	教育	小學校令(1冊)	學部編輯局	高宗 32(1895)	國立古朝25-46
"	"	教育法規抄(1冊)	學部編輯局	隆熙 3(1909)	國立5412-5
"	"	韓國教育(1冊)	學部編輯局	隆熙 3(1909)	서울대370.951
"	"	普通教育學(1冊)	學部編輯局	隆熙 4(1910)	韓國學370.1學46普
純粹科學	算術	近易算術書(2卷2冊)	學部編輯局	高宗 32(1895)	國立古711-1
"	"	簡易四則問題集(1冊)	學部編輯局	高宗 32(1895)	國立古556-7
"	"	算術新書(2卷2冊)	李相高	光武 4(1900)	國立古556-8
"	"	普通學校教員用算術書(4卷4冊)	學部編輯局	隆熙 3(1909)	國立朝12-B139
"	物理	普通學校學徒用理科書(2卷2冊)	學部編輯局	隆熙 2(1908)	國立朝12-B47
技術科學	生理	種痘新書(1冊)	古城梅溪 講述, 麻川松次郎 翻譯	光武 2(1898)	高麗大육당513 3
藝術	圖畫	圖畫臨本(4卷4冊)	學部編輯局	隆熙 1-2(1907-8)	國立朝12-B89
"	體操	學校體操教授書(1冊)	學部編輯局	隆熙 3(1909)	國立558-2
"	唱歌	普通教育唱歌集1輯(1冊)	學部編輯局	隆熙 4(1910)	韓國學375.467 學46唱
言語	國語	國民小學讀本(1冊)	學部編輯局	高宗 32(1895)	奎古2181-2
"	"	新訂尋常小學(3卷3冊)	學部編輯局	建陽 1(1896)	奎古2181-1
"	"	國語讀本(8卷8冊)	學部編輯局	隆熙 1(1907)	서울대371.32
"	"	普通學校學徒用習字帖(4卷4冊)	劉漢翼	隆熙 3(1909)	國立朝12-B76

主題	細部主題	書名	編·著者	刊行時期	請求記號
"	"	朝鮮語讀本(8卷8冊)	學部編輯局	隆熙 4(1910)	大邱가톨릭대 375.47
"	日語	日語讀本(4卷4冊)	學部編輯局	隆熙 2(1908)	韓國學375.473
"	漢文	漢文讀本(1冊)	學部編輯局	隆熙 1(1907)	梨花女大古書/T31 372.4
"	"	漢文入門(1冊)	學部編輯局	隆熙 2(1908)	國立朝12-B44
歷史	歷史(國內)	朝鮮歷代史略(3卷3冊)	學部編輯局	高宗 32(1895)	奎6228
"	"	朝鮮歷史(3卷3冊)	學部編輯局	高宗 32(1895)	奎古5 2 2
"	"	朝鮮略史十課(1冊)	學部編輯局	建陽 1(1896)	奎6229
"	"	普通教科東國歷史(5卷2冊)	玄采	光武 3(1899)	梨花女大古書/T 貴951
"	"	大韓歷代史略(2卷2冊)	金澤榮	光武 3(1899)	奎2867-7
"	"	東國歷代史略(6卷3冊)	學部編輯局	光武 3(1899)	奎2867-1
"	"	東史輯略(11卷3冊)	金澤榮	光武 6(1902)	國立古211-40
"	"	大東歷史(12卷4冊)	鄭喬, 趙臣, 金鼎鉉	光武 9(1905)	檀國大ISO911
"	"	歷史輯略(11卷3冊)	金澤榮	光武 9(1905)	國立古2100-28
"	"	大韓隆熙三年曆(1冊)	學部編輯局	隆熙 3(1909)	湖南大448대91
"	"	大韓隆熙四年曆(1冊)	學部編輯局	隆熙 4(1910)	湖南大448대91
"	歷史(外國)	世界萬國年契(1冊)	學部編輯局	高宗 32(1895)	奎6519
"	"	萬國略史(2卷2冊)	龍峯野野村	建陽 1(1896)	서울대심약909
"	"	泰西新史攬要(24卷2冊)	馬懇西 著, 李提摩太 口譯, 蔡爾康 筆述	光武 1(1897)	서울대古45208 1
"	"	俄國略史(1冊)	關斐迪 著, 學部編輯局 譯	光武 2(1898)	서울대45606
"	"	中日略史合編(4卷1冊)	學部編輯局	光武 2(1898)	서울대4320 30
"	"	清國戊戌政變記(13卷2冊)	梁啟超 著, 玄采 譯	光武 4(1900)	國立古2260-6
"	地理(國內)	朝鮮地誌(1冊)	學部編輯局	高宗 32(1895)	奎古915.1
"	"	大韓地誌(14卷2冊)	玄采	光武 3(1899)	國立5573-104
"	"	韓國地理教科書(1冊)	學部編輯局	隆熙 4(1910)	國立TX5523-20
"	地理(外國)	小學萬國地誌(6卷1冊)	學部編輯局	高宗 32(1895)	서울대일사古910
"	"	士民必知(1冊)	H.B. Hulbert	高宗 32(1895)	奎6313
"	"	輿載撮要(1冊)	吳宥默	建陽 1(1896)	國立古朝60-20
"	"	地璆略論(1冊)	學部編輯局	光武 1(1897)	奎12676
"	"	中等萬國地誌(3卷3冊)	矢津昌永 撰, 朱榮煥, 盧載淵 譯	光武 6(1902)	國立古5523-2
"	地圖(國內)	大朝鮮國全圖(1張)	學部編輯局	建陽 1(1896)	成均館大 B16JB-0002
"	"	東輿地圖	學部編輯局	建陽 1(1896)	(實物未發見)
"	"	大韓全圖(13張)	學部編輯局	光武 3(1899)	圓光大911.11 ㄱ223
"	"	大韓十三道程里表(1張)	學部編輯局	光武 6(1902)	奎9963
"	地圖(外國)	小地球圖着色	學部編輯局	建陽 1(1896)	(實物未發見)
"	"	國文小地球圖着色	學部編輯局	建陽 1(1896)	(實物未發見)
"	"	五洲各國統屬全圖(1張)	學部編輯局	建陽 1(1896)	誠庵古書博物館
"	"	世界全圖(1張)	學部編輯局	光武 4(1900)	奎古軸4709-44

* 청구기호: 國立(국립중앙도서관), 奎(규장각), 韓國學(장서각)

3.2 刊行圖書의 分析

대한제국시대 학부에서 편찬 간행한 도서의 내용분석을 위하여 문헌조사를 통해 밝혀진 37종과 장서목록을 통하여 실물조사 한 26종 등 총 63종에 대하여 그 주제를 구분하고 내용을 분석하였는데 학부에서 편찬 간행한 도서의 주제와 내용은 종교와 문학 분야를 제외하고는 각 분야에 망라되어 있어, 그 범위는 현재와 대동소이한 것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도서 가운데 수신과 역사, 지리 등이 타부분에 비해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시대의 정치적 배경이나 여건이 그대로 교육이나 도서에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농업에 대해서는 당시 정부의 가장 시급한 사업을 농업과 각종 실업 분야의 교육이라 기술(김봉희 1999)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부에서 편찬 간행한 도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教科用圖書一覽》의 학부 인가 교과용도서에는 농업관련 도서가 31종으로, 인가도서 중 산술관련 서적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학부의 존립 기간이 16년 정도로 짧아 연도별 분석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지만, 학부에서 최초로 편찬하여 간행한 도서는 《國民小學讀本》이며, 이것을 시작으로 하여 《朝鮮歷史》, 《朝鮮歷代史略》, 《小學讀本》순으로 간행되었다.

주제별로는 총류 관련 2종, 수신, 5종, 국어 5종, 일어 1종, 한문 2종, 국내역사 11종, 외국역사 6종, 국내지리 3종, 외국지리 5종, 국내지도 4종, 외국지도 4종, 법률 1종, 경제 1종, 교육

4종, 산술 4종, 물리, 생리, 도화, 체조, 창가 각 1종 등 63종으로 나타났다.

4. 學部 編纂 刊行 圖書의 調査

4.1 刊行時期

학부의 도서 간행은 연도 별로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갑오개혁과 을사조약, 경술국치 등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간행 시기별로 분석하였다.

학부의 존립기간(1895-1910) 중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들을 살펴보면, 1894년 갑오개혁을 계기로 1895년 학부가 설립되었으며, 1905년에는 을사조약으로 인하여 일본인의 진출로 교과서의 자주적인 출판이 단절되었고, 1910년에는 경술국치로 인하여 학부가 폐지되는 등의 중요한 일들이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은 도서의 간행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학부에서 편찬 간행한 도서의 주제별 간행연도를 표로 작성하면 <표 2>와 같다.

<표 2>와 같이 간행연도 별로 살펴본 결과, 학부 초기인 1895년에 12종으로 제일 많이 간행되었으며, 다음해인 1896년에는 11종으로 두 번째 많이 간행되었다. 그 외 연도에는 미약하게 간행되다가 1905년 11월에 을사조약이 체결되어 일본인이 학부의 도서 간행에 참여하게 되면서 1908년부터는 다시 간행종수가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학부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살펴보면 학부

〈표 2〉 學部 編纂 刊行 圖書의 主題別 刊行年度

(단위: 종)

年度	1895	1896	1897	1898	1899	1900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1908	1909	1910	計
總類	1															1	2
修身	2	1						1						1			5
法律		1															1
經濟														1			1
教育	1														2	1	4
算術	2					1									1		4
物理														1			1
生理				1													1
藝術													1		1	1	3
國語	1	1											1		1	1	5
日語														1			1
漢文													1	1			2
國內歷史	2	1			3			1			2				1	1	11
外國歷史	1	1	1	2		1											6
國內地理	1				1											1	3
外國地理	2		1					1									4
國內地圖		3			1			1									5
外國地圖		3				1											4
計	12	11	2	3	5	3	0	4	0	0	2	0	3	6	6	6	63

전기(1895-1905)에 간행된 도서는 42종이었으며, 학부 후기(1906-1910)에는 21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1901년과 1903년, 1904년, 1906년에는 학부에서 한 권의 책도 편찬 및 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1906년 3월 일본 통감부가 학부 쇄신 확장비인 도서 편찬 경비로 차관 50만원을 제공(관보 1906)한 것으로 보아 학부에서는 자체적으로 도서를 간행할 자금이 부족하였던 것과 일제의 간섭이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08년부터 학부 편찬 교과서 간행 종수가 늘어난 것은 차관 50만원을 받은 이유와 1908년 공포된 교과서검정규정 및 인가제도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교과서 내용의 사전

검열이 어우러지게 되면서, 그간 사립학교 등에서 사용되던 애국 계몽적 성격의 교과서가 발매금지 처분을 받은 대신, 《日語讀本》을 비롯하여 일본의 구미에 맞게 씌어진 학부 편찬 교과서가 각 학교의 교과서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여겨지며, 내용면에서도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수신이나 역사 과목 등은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경제나 학교교육에 관련한 서적을 많이 간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전체 도서를 간행시기 및 주제별로 나누면 학부 초기에는 수신, 산술, 국어, 역사, 지리 등의 도서가 많이 간행되었다. 이것은 갑오개혁으로 인하여 국민의 정신적 바탕을 다질 목적으로 하는 계몽서가 필요하였으며, 우리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민족에 대한 애국심이 싹텄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학부 후기에는 수신, 경제, 교육, 예술, 국어, 일어, 한문 등의 도서가 주로 간행되었다. 이것은 일본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차관 50만원을 학부에 제공하면서 6종(수신, 국어, 일어, 한문, 이과, 도화)의 교재를 개발하도록 지시한 영향이 큰 것으로 생각되며, 전체도서에서 역사와 지리에 관련된 도서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구한말의 시대적인 특징으로서 국가에서도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4.2 刊行方法

활자는 그 시대에 간행된 도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刊年 추경수단으로 중요하다. 그러므로 학부 도서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간행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들 간본을 활자본과 목판본 등으로 구분하여 그 종류와 인출도서 및 서지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하지만 《東輿地圖》, 《小地球圖着色》, 《國文小地球圖着色》 등 지도와 관련된 3종은 실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간행 방법에서 제외하였다.

4.2.1 活字本

학부에서 간행한 도서는 지도 자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활자로 인출되었다. 사용된 활자

로는 整理字本, 芸閣印書體字本, 木活字本, 新鉛活字本 등이 사용되었으며, 그것의 종류와 서지적 특징 등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1) 整理字本

청나라의 사고전서에 들어 있던 康熙字典의 글자를 바탕으로 만든 나무활자가 生生字인데 그것을 바탕으로 만든 글자가 정리자이며, 구한말 정부의 인쇄물인 학부교과서, 법령, 條約書, 관보 등에 주로 사용되었다(천혜봉 2006). 학부에서 편찬 간행된 도서 중 정리자본은 <표 3>과 같다.

<표 3>과 같이 학부에서 편찬 간행된 도서 중 정리자본으로 活人된 책은 5종이며, 建陽 1年(1896)에서 光武 3年(1899)까지 주로 학부 전기에 걸쳐 사용되었다. 판식은 사주단변으로, 대체로 10행21자를 사용하였으며, 상흑어미로서 행자수에서 《新訂尋常小學》만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2) 芸閣印書體字本

肅宗朝 초기(1684년 이전)에 校書館이 명나라의 인서체 간본을 바탕으로 첩활자를 주성하였다. 이 활자를 운각인서체자본 또는 교서관인서체자라 부르고 있으며, 학부도 갑오경장의 다음해부터 교과서를 찍을 때 사용하였다

<표 3> 學部 編纂 刊行 圖書의 整理字本

書名	刊行年	板匡	界線	行字數	魚尾	半郭
公法會通(10卷3册)	建陽1年(1896)	四周單邊	無界	10行21字	上黑魚尾	23.5×15.1cm
新訂尋常小學(3卷3册)	建陽1年(1896)	四周單邊	無界	8行17字	上黑魚尾	20.0×13.2cm
地璆略論(1册)	建陽1年(1896)	四周單邊	有界	10行21字	上黑魚尾	22.0×15.5cm
大韓歷代史略(2卷2册)	光武3年(1899)	四周單邊	有界	10行21字	上黑魚尾	24.1×16.7cm
東國歷代史略(6卷3册)	光武3年(1899)	四周單邊	有界	10行21字	上黑魚尾	24.1×16.7cm

〈표 4〉 學部 編纂 刊行 圖書의 芸閣印書體字本

書名	刊行年	板匡	界線	行字數	魚尾	半郭
大東歷史(12卷4冊)	光武9年(1905)	四周單邊	無界	10行22字	二葉內向魚尾	28.6×19.0cm

(천혜봉 2006). 학부에서 편찬 간행된 도서 중 운각인서체자본의 종류를 표로 작성하면 〈표 4〉와 같다.

〈표 4〉와 같이 운각인서체자본은 1종이다. 판식은 사주단변, 무계, 10행22자, 이엽내향어미이며, 간행 시기는 光武 9年(1905)인 것으로 보아 학부 전기에 사용되었던 글자체이지만, 1종만 간행된 것으로 보아 학부에서는 별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木活字本

학부에서도 갑오개혁(1894) 후 내각관제의 변혁과 함께 갑자기 새 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김두중 1974). 학부에서 편찬 간행된 도서 중 목활자로 인출된 도서들을 표로 작성하면 〈표 5〉와 같다.

〈표 5〉에 나타나는 목활자본은 12종이다. 高宗年間 인출본이 8종이고 建陽년간 3종, 隆熙년간에 1종이다. 판식은 목활자본 전체에서 사주단변, 유계, 10행20자, 상이엽화문어미로 나타났다.

4) 新鉛活字本

신연활자는 高宗 17年(1880) 일본에서 崔智燮의 글씨를 바탕으로 주조한 글자로 대한제국 말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사용되었다(천혜봉 1990). 학부에서 편찬 간행된 도서 중 신연활자로 인출된 도서들을 표로 제시하면 〈표 6〉과 같다.

〈표 6〉과 같이 신연활자본은 35종으로 학부의 도서는 대부분 신연활자본으로 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高宗년간 인출본이 2종이고 建陽

〈표 5〉 學部 編纂 刊行 圖書의 木活字本

書名	刊行年	板匡	界線	行字數	魚尾	半郭
國民小學讀本(1冊)	高宗32年(1895)	四周單邊	有界	10行20字	上二葉花紋魚尾	21.5×15.3cm
士民必知(1冊)	高宗32年(1895)	四周單邊	有界	10行20字	上二葉花紋魚尾	21.3×14.5cm
小學讀本(1冊)	高宗32年(1895)	四周單邊	有界	10行20字	上二葉花紋魚尾	21.4×15.1cm
小學萬國地誌(6卷1冊)	高宗32年(1895)	四周單邊	有界	10行20字	上二葉花紋魚尾	21.6×14.2cm
夙惠記略(1冊)	高宗32年(1895)	四周單邊	有界	10行20字	上二葉花紋魚尾	21.2×14.1cm
朝鮮歷代史略(3卷3冊)	高宗32年(1895)	四周單邊	有界	10行20字	上二葉花紋魚尾	21.3×14.0cm
朝鮮歷史(3卷3冊)	高宗32年(1895)	四周單邊	有界	10行20字	上二葉花紋魚尾	21.3×14.4cm
朝鮮地誌(1冊)	高宗32年(1895)	四周單邊	有界	10行20字	上二葉花紋魚尾	21.4×14.3cm
萬國略史(2卷2冊)	建陽1年(1896)	四周單邊	有界	10行20字	上二葉花紋魚尾	23.4×14.3cm
牖蒙彙編(1冊)	建陽1年(1896)	四周單邊	有界	10行20字	上二葉花紋魚尾	21.6×14.3cm
朝鮮略史十課(1冊)	建陽1年(1896)	四周單邊	有界	10行20字	上二葉花紋魚尾	21.4×14.1cm
小學校令(1冊)	隆熙1年(1907)	四周單邊	有界	10行20字	上二葉花紋魚尾	23.5×15.4cm

〈표 6〉 學部 編纂 刊行 圖書의 新鉛活字本

書名	刊行年	板匡	界線	行字數	魚尾	半郭
近易算術書(2卷2册)	高宗32年(1895)	四周雙邊	無界	13行字數不定	無魚尾	22.3×15.2cm
世界萬國年契(1册)	高宗32年(1895)	四周雙邊	有界	10行字數不定	無魚尾	22.5×15.0cm
簡易四則問題集(1册)	建陽1年(1896)	四周雙邊	無界	13行字數不定	無魚尾	22.2×15.3cm
泰西新史攬要(24卷2册)	光武1年(1897)	四周雙邊	無界	20行40字	無魚尾	26.6×18.9cm
普通教科東國歷史(11卷3册)	光武2年(1898)	四周雙邊	無界	12行28字	無魚尾	17.5×11.2cm
俄國略史(1册)	光武2年(1898)	四周雙邊	無界	12行34字	無魚尾	23.5×14.7cm
種痘新書(1册)	光武2年(1898)	四周雙邊	無界	12行35字	無魚尾	17.5×10.2cm
中日略史合編(4卷1册)	光武2年(1898)	四周雙邊	無界	12行35字	無魚尾	17.5×10.1cm
大韓地誌(14卷2册)	光武3年(1899)	四周雙邊	無界	12行28字	無魚尾	17.5×12.1cm
算術新書(1册)	光武4年(1900)	四周雙邊	無界	17行36字	無魚尾	18.4×12.2cm
清國戊戌政變記(13卷2册)	光武4年(1900)	四周雙邊	無界	15行28字	無魚尾	23.0×16.5cm
大韓十三道程里表(1張)	光武6年(1902)	四周單邊	無界	行字數不定	無魚尾	33.6×20.3cm
東史輯略(11卷3册)	光武6年(1902)	四周雙邊	無界	13行28字	上二葉花紋魚尾	17.5×11.2cm
西禮須知(1册)	光武6年(1902)	四周雙邊	無界	12行26字	無魚尾	23.2×14.7cm
中等萬國地誌(3卷3册)	光武6年(1902)	四周雙邊	無界	13行28字	無魚尾	17.4×11.4cm
歷史輯略(11卷3册)	光武9年(1905)	四周雙邊	無界	13行31字	無魚尾	19.7×13.3cm
普通學校學徒用習字帖(4卷4册)	隆熙1年(1907)	四周雙邊	無界	行字數不定	無魚尾	23.0×15.0cm
漢文讀本(1册)	隆熙1年(1907)	四周雙邊	無界	7行12字	無魚尾	17.5×14.5cm
圖畫臨本(1册)	隆熙1-2年(1907-8)	四周單邊	無界	그림	無魚尾	19.0×14.0cm
經濟通論(5卷1册)	隆熙2年(1908)	四周雙邊	無界	13行字數不定	無魚尾	22.0×15.0cm
理科書(2卷2册)	隆熙2年(1908)	四周雙邊	無界	行字數不定	無魚尾	23.0×15.2cm
普通學校教員用算術書(4卷4册)	隆熙2年(1908)	四周雙邊	無界	行字數不定	無魚尾	22.2×15.2cm
普通學校學徒用修身書(4卷4册)	隆熙2年(1908)	四周雙邊	無界	8行15字	無魚尾	22.2×15.2cm
日語讀本(4卷4册)	隆熙2年(1908)	四周雙邊	無界	8行字數不定	無魚尾	22.0×15.3cm
漢文入門(1册)	隆熙2年(1908)	四周雙邊	無界	6行字數不定	無魚尾	23.0×15.2cm
教育法規抄(1册)	隆熙3年(1909)	四周無邊	無界	14行44字	無魚尾	23.0×15.2cm
國語讀本(8卷8册)	隆熙3年(1909)	四周雙邊	無界	行字數不定	無魚尾	22.0×15.0cm
學部職員錄(1册)	隆熙3年(1909)	四周單邊	無界	行字數不定	無魚尾	22.0×13.5cm
韓國教育(1册)	隆熙3年(1909)	無邊	無界	16行字數不定	無魚尾	23.0×15.2cm
教科用圖書一覽(1册)	隆熙4年(1910)	上下單邊	無界	15行字數不定	無魚尾	23.0×15.2cm
普通教育學(1册)	隆熙4年(1910)	四周雙邊	無界	13行字數不定	無魚尾	22.7×15.2cm
普通學校唱歌集1輯(1册)	隆熙4年(1910)	四周單邊	無界	10行字數不定	無魚尾	22.0×15.2cm
朝鮮語讀本(8卷8册)	隆熙4年(1910)	四周雙邊	無界	8行字數不定	無魚尾	22.0×15.2cm
學校體操教授書(1册)	隆熙4年(1910)	無邊	無界	20行字數不定	無魚尾	22.0×15.2cm
韓國地理教科書(1册)	隆熙4年(1910)	四周單邊	無界	12行25字	無魚尾	23.0×15.3cm

년간 1종, 光武년간 13종, 隆熙년간 19종이다. 관식은 대체로 사주쌍변이나 《教育法規抄》와 《學校體操教授書》는 무변이었다. 자수는 부정한 것이 많았고, 무어미인데 《東史輯

略》만이 상이엽화문어미로 조금 다르게 나타났다.

활자본의 성격을 종합해 보면 어느 특정주제에 한정되지 않고 학부년간에 골고루 사용되었

다. 특히 학부 후기에 신연활자가 많이 사용되었으며, 행자수도 부정한 것이 많았고 무어미인 것이 특징이다.

4.2.2 木版本

학부에서는 주로 지도에 목판본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부에서 편찬 간행된 도서 중 목판 인출본을 표로 작성하면 <표 7>과 같다.

<표 7>과 같이 목판본은 6종으로 나타났다. 建陽년간 인출본이 3종이고, 光武년간 1종, 隆熙년간 인출본이 2종이다. 판식은 《五洲各國統屬全圖》만 사주쌍변으로 다르며, 《輿載撮要》만이 유계, 나머지는 무계이며, 행자수와 어미에서도 《輿載撮要》만이 10행26자와 상이엽화문어미로 조금 다르다.

목판본의 성격을 종합해 보면 학부년간에 사용되었으며, 대부분 각종 지도나 曆書에 사용된 것이 특징이다.

4.2.3 石版本

석판인쇄는 평판인쇄의 초기형태로 우리나라는 20세기 초기부터 성행하였으며(천혜봉 1990) 학부에서 편찬 간행된 도서 중 석판 인출본을 표로 작성하면 <표 8>과 같다.

<표 8>과 같이 光武 3年(1899)에 간행되었으며, 사주쌍변의 판식이다. 위에서의와 같이 학부의 지도는 대부분이 목판을 사용하였으나 《大韓全圖》를 석판으로 사용한 것은 문자나 기호, 그림을 간편하게 인쇄하기 위하여 사용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표 7> 學部 編纂 刊行 圖書의 木版本

書名	刊行年	板匡	界線	行字數	魚尾	匡郭
大朝鮮國全圖(1張)	建陽1年(1896)	四周單邊	無界	行字數不定	無魚尾	21.0×29.3cm (半郭)
輿載撮要(1冊)	建陽1年(1896)	四周單邊	有界	10行26字	上二葉花紋魚尾	20.3×13.4cm (半郭)
五洲各國統屬全圖(1張)	建陽1年(1896)	四周雙邊	無界	行字數不定	無魚尾	56.4×77.4cm (全郭)
世界全圖(1張)	光武4年(1900)	四周單邊	無界	行字數不定	無魚尾	93.0×153.0cm (全郭)
大韓隆熙三年曆(1冊)	隆熙2年(1908)	四周單邊	無界	16行字數不定	無魚尾	19.5×12.7cm (半郭)
大韓隆熙四年曆(1冊)	隆熙3年(1909)	四周單邊	無界	16行字數不定	無魚尾	19.5×12.7cm (半郭)

<표 8> 學部 編纂 刊行 圖書의 石版本

書名	刊行年	板匡	全郭
大韓全圖(13張)	光武3年(1899)	四周雙邊	32.9×23.3cm

4.3 裝訂形態

개화기 출판물의 편집 및 조책 양식과 출판 자재를 보면 비록 서양식 인쇄기를 도입하였지만 우리의 출판 문화 방식을 주체적으로 발전시킨 결과 본문의 편집 체제나 활자의 크기, 장책 방식, 용지 등에서 전통적인 방식을 많이 찾아볼 수 있으며(윤성희 2005) 일부는 수입 양지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한지를 기본으로 사용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고서들과 같은 편집 레이아웃과 체제가 이 시기의 출판 양식의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백운관, 부길만 1992).

우리나라 冊紙는 고대에서 삼 겹질을 원료로 하여 만든 麻紙를 사용한 설이 있지만, 주로 楮紙를 사용해왔다. 저지는 닥 겹질을 벗겨 삶

아 표백한 다음, 닥풀을 섞어 떠서 만든 종이를 말하며, 특히 표백을 잘하고 닥풀을 잘 먹여 지면을 희고 윤이 나고 뽀뽀하고 질기게 한 것을 白礮紙라 일컬으며, 이것을 특히 두껍게 뜬 것을 壯紙라 이른다. 桑皮로 만든 종이는 桑紙라 하고, 竹葉과 竹皮로 만든 종이는 竹紙라 일컬으며, 중국의 고서는 거의 대부분이 이 竹紙로 되어있다. 綿으로 만든 종이는 綿紙라 하며, 습기가 차면 부풀어 올라 훼손되기 쉽다(천혜봉 1990).

학부에서 편찬 간행된 도서 중 실물을 발견하지 못한 《東輿地圖》, 《小地球圖着色》, 《國文小地球圖着色》 등 지도와 관련된 3종을 제외한 용지 및 장정의 종류를 간행연도별로 표를 작성하면 <표 9>와 같다.

<표 9> 學部 編纂 刊行 圖書의 用紙 및 裝訂

구분	用紙		裝訂	
	韓紙	洋紙	韓裝	洋裝
高宗 32年 (1895)	簡易四則問題集		簡易四則問題集	
	國民小學讀本		國民小學讀本	
	近易算術書		近易算術書	
	士民必知		士民必知	
	世界萬國年契		世界萬國年契	
	夙惠記略		夙惠記略	
	小學校令		小學校令	
	小學讀本		小學讀本	
	小學萬國地誌		小學萬國地誌	
	朝鮮歷代史略		朝鮮歷代史略	
	朝鮮歷史		朝鮮歷史	
建陽 1年 (1896)	公法會通		公法會通	
	萬國略史		萬國略史	
	輿載撮要		輿載撮要	
	新訂尋常小學		新訂尋常小學	
	牖蒙彙編		牖蒙彙編	
	朝鮮略史十課		朝鮮略史十課	
	大朝鮮國全圖(綿紙)			
五洲各國統屬全圖(壯紙)				

구분	用紙		裝訂	
	韓紙	洋紙	韓裝	洋裝
光武 1年 (1897)	地瑣略論		地瑣略論	
	泰西新史攬要		泰西新史攬要	
光武 2年 (1898)		俄國略史	俄國略史	
	種痘新書		種痘新書	
光武 3年 (1899)		中日略史合編	中日略史合編	
		普通教科東國歷史	普通教科東國歷史	
	大韓歷代史略		大韓歷代史略	
	東國歷代史略	大韓地誌	大韓地誌	
光武 4年 (1900)		算術新書	算術新書	
		清國戊戌政變記		清國戊戌政變記
	世界全圖(竹紙)			
光武 6年 (1902)	東史輯略		東史輯略	
		西禮須知		西禮須知
		中等萬國地誌	中等萬國地誌	
光武 9年 (1905)		大東歷史	大東歷史	
		歷史輯略	歷史輯略	
隆熙 1年 (1907)		國語讀本		國語讀本
		圖畫臨本		圖畫臨本
		漢文讀本		漢文讀本
隆熙 2年 (1908)		經濟通論	經濟通論	
		普通學校學徒用 理科書		普通學校學徒用 理科書
		普通學校學徒用 修身書		普通學校學徒用 修身書
		日語讀本		日語讀本
		學部職員錄		學部職員錄
隆熙 3年 (1909)		漢文入門		漢文入門
		教育法規抄		教育法規抄
		大韓隆熙三年曆		大韓隆熙三年曆
		普通學校教員用 算術書		普通學校教員用 算術書
		普通學校學徒用 習字帖		普通學校學徒用 習字帖
		學校體操教授書		學校體操教授書
隆熙 4年 (1910)		韓國教育		韓國教育
		教科用圖書一覽		教科用圖書一覽
		大韓隆熙四年曆		大韓隆熙四年曆
		普通教育唱歌集(1輯)		普通教育唱歌集(1輯)
		普通教育學		普通教育學
		朝鮮語讀本		朝鮮語讀本
	韓國地理教科書		韓國地理教科書	

〈표 9〉와 같이 학부 초기에는 모든 도서에서 한지, 한장본을 사용하였고, 1898년부터 1907년까지는 한지와 양지, 양장본과 한장본이 섞여서 사용되었으며, 1908년 이후부터는 모든 도서에서 양지와 양장본을 사용하였다.

4.4 圖書價格

학부편집국에서는 1985년부터 각종 교과서를 출간하였는데 같은 해 7월에 소학교령이 공포되면서 《國民小學讀本》, 《朝鮮歷史》, 《士民必知》 등을 국한문혼용체로 편찬하였으니, 이렇듯 많은 서적이 쏟아져 나오게 된 것은 실로 획기적인 사실로서 신학문의 전달과 민족의 주체의식을 고취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하게 되었다(백순재 1970). 이때 출간된 서적들은 재래식의 목활자로서 국한문을 섞어 쓴 문체로 사회대중에게 직접 소개되고 전파되기는 이것들이 처음인 것이다(최준 1963). 더욱이 이러한 간행물의 출현은 근대적 활판술에 의한 서적의 대량간행을 예고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당시의 도서 편찬 기준이나 내용을 밝힌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때 발간되었던 서적의 가격표를 살펴봄으로써 당시의 생활물가와 서적가격과의 비교 및 서적간행의 성격을 살펴 고자 한다.

학부에서 편찬 간행한 《新訂尋常小學》 卷一建陽 1年(1896), 《泰西新史攬要》 光武 1年(1897) 및 《中日略史合編》 光武 2年(1898)의 책 말미에 있는 학부편집국서적정가금표와 《教科用圖書一覽》의 학부 편찬 교과용도서 및 실물 도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가격은 〈표 10〉과 같다.

개화기의 책값들은 최저 2전의 《國民自由進歩論》에서 최고 7원의 《萬國史記》까지 천차만별이었지만 대체로 평균 가격은 58전이였다. 이는 당시 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에 게재된 서적 광고에 나타난 165종에 대한 가격을 분석한 것으로 당시의 쌀 한가마니(180ℓ)의 값으로 22권을 살 수 있는 가격이었으며, 이러한 책값은 쌀 1석(15말)이 5兩이었던 1801년에 《邪學懲義》란 책이 1량 7전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 이상으로 저렴해진 것이 된다(이중한 2001).

그 당시(1896년)의 백미 1升은 五錢 五分이었고 소맥 1升은 四錢 四分이었으며, 豆 1升은 五錢 五卜, 녹두 1升은 5錢이었던 것으로 沈遠權의 日記(국사편찬위원회 2004)에서 나타났으며, 현재의 쌀 한가마니 가격이 16만원 정도라고 하니 지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책의 가격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내용은 《新訂尋常小學》1, 2, 3권(1896), 《泰西新史攬要》(1897), 《中日略史合編》(1898) 등 3책의 권말에 있는 정가금표를 비교해보면 《新訂尋常小學》의 1권과 2권의 권말에 있는 정가금표에는 같은 가격으로 나와 있지만, 《新訂尋常小學》 3권부터 《泰西新史攬要》, 《中日略史合編》까지의 정가금표에는 연도가 지날수록 가격은 20~30% 정도 저렴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대한제국시대 전체 도서의 정확한 책값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1900년대에 들어가면서 출판기술의 보급과 독서인구의 증가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짐으로써 책값이 싸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책값의 저렴화는 서적의 대량 보급을

〈표 10〉學部 編纂 刊行 圖書의 價格

書名	卷冊	價格
簡易四則算術		40錢
經濟通論		50錢
公法會通	3冊	1圓
國文小地球圖着色		4錢
國民小學讀本		20錢
國語讀本		12錢
近易算術	上, 下	80錢
大韓隆熙四年曆		10錢
圖書臨本		12錢
東國歷史		1圓10錢
東輿地圖		8錢
理科書		13錢
萬國略史	上, 下	40錢
萬國地誌		24錢
普通教育唱歌集	1輯	11錢
普通教育學		24錢
普通學校學徒用修身書		10錢
士民必知(漢文)		32錢
算術書		24錢
算術新書		1圓
西禮須知		12錢
小地球圖着色		5錢
小學讀本		10錢
夙惠記略		14錢
習字帖		8錢
新訂尋常小學	1卷	14錢
新訂尋常小學	2卷	16錢
新訂尋常小學	3卷	16錢
俄國略史		8錢
輿載撮要		40錢
隔蒙彙編		8錢
日語讀本		12錢
朝鮮略史		8錢
朝鮮歷代史略(漢文)	3冊	70錢
朝鮮歷史		40錢
朝鮮地誌		20錢
中等萬國地誌	1帙3冊	1圓80錢
中日略史合編		14錢
地璆略論		8錢
泰西新史攬要(漢文)	2冊	50錢
泰西新史攬要(國文)	2冊	50錢
學校體操教授書		34錢
韓國地理教科書		30錢
漢文讀本		10錢
漢文入門		11錢

가능하게 하였고, 신교육이 확산되는 시기에 교육기회를 확대할 수 있었으며, 더불어 독서의 대중화를 촉진시킴으로써 일반 대중들의 서적 수용환경에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주제는 16개 과목 63종으로 각 분야에 망라되어 있으며, 수신과 역사, 지리 등이 다른 도서에 비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간행방법은 대부분이 활자로 인출되었으며 그중 신연활자본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용지 및 장정은 한지 한장본이 가장 많았고, 지도에 사용된 용지는 간행연도와 상관없이 다양하다. 간행시기는 학부 전기에 42종이 간행되었으며, 수신, 산술, 국어, 역사 관련이었고, 학부 후기에는 21종이 간행되었으며, 수신, 경제, 교육, 국어, 일어, 한문, 예술 관련이었다. 도서가격은 생필품 등의 가격과 비교해 보았을 때 지금의 도서가격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가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5. 學部圖書의 分析

5.1 主題別 特性

주제별 특성에서는 이 연구에서 밝혀진 도서

의 주제와 그 내용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학부에서 편찬 간행되어진 도서의 주제는 16개 과목 63종이다. 주제별 내용으로는 총류 관련 2종, 수신 5종, 법률, 경제 1종, 교육, 산술 4종, 물리, 생리, 도화, 체조, 창가 1종, 국어 5종, 일어 1종, 한문 2종, 국내역사 11종, 외국역사 6종, 국내지리 3종, 외국지리 5종, 국내지도 4종, 외국지도 4종 등이었다. 학부에서 편찬 간행한 도서의 주제별 상황을 표로 작성하면 <표 11>과 같다.

총류 관련 도서는 학부에서 편찬 간행한 도서에 대한 내용 등과 학부에서 소관하는 각급 학교 직원의 이름과 소속, 관등 등을 알 수 있다.

수신서는 학부 전기에는 선인들의 행적이나 일화, 고사와 우리나라 위인들, 역사와 문화, 예절, 국가에 대한 의무, 성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에 대한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학부 후기에는 개인의 처신과 사회생활 등 준법정신을 강조하였으나 우리국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할 만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일제의 통치 목적에 대한 저의를 엿볼 수 있다.

법률서는 공법에 의하여 서양열강과 외교관계가 수립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사실과, 국민들에게 법률의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간행되었으며, 경제는 개화파 지식인들이 부국강병을

<표 11> 學部 編纂 刊行 圖書의 主題別 狀況

主題	總類	修身	法律	經濟	教育	算術	物理	生理	圖畫	體操	唱歌
種	2	5	1	1	4	4	1	1	1	1	1
%	3.2	8	1.6	1.6	6.3	6.3	1.6	1.6	1.6	1.6	1.6
主題	國語	日語	漢文	國內歷史	外國歷史	國內地理	外國地理	國內地圖	外國地圖	計	
種	5	1	2	11	6	3	5	4	4	63	
%	8	1.6	3.2	17.4	9.5	4.7	8	6.3	6.3	100	

목표로 구상했던 경제체계의 개혁방향이 상업 활동의 강조였으므로, 상업상의 일반적인 원리와 지식을 깨닫게 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교육과 관련된 도서는 학부 후기에 간행되었다. 일어과 교수법, 일본유학생에 관한 기록, 한국연호와 일본연호의 대조표가 있는 것 등으로 봐서 일제는 신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산술서는 일용계산을 익히고 동시에 사상을 정밀히 하고 유익한 지식을 주는 것을 요지로 삼는다고 하였으며, 물리는 신학제 이후 친일내각이 일본의 영향을 받아 도입된 학문의 분야로서 내용이 일본 것과 거의 동일하였다.

생리는 교과용도서와 인체해부도 등 의학에 관련한 서적을 묶어서 생리로 분류하였으며, 도화관련서는 도화과 교육을 구체화시킬 교과용 도서는 발행되지 못하였다.

체조서는 정규과목의 하나로 교육되었으며, 창가는 일본인 간섭아래 창가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의 전통음악은 수록하지 못한 채 일본 창가들을 번안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식민지 정책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국어서는 학부 전기에는 대민계몽을 위한 교육용 위주로 간행되었으나 학부 후기에는 우리 국민의 애국심과 민족적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내용은 교묘히 배제하는 일제의 편찬의도가 엿보였고 일어난 일본의 영향력이 많은 시기였으므로 교과목의 하나로 설정되었으며, 아울러 일본어 학습서의 발행도 많아졌다.

한문서는 정치주도세력의 교체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받았으며, 일본은 학부를 장악하고 일본어 교육을 강화하려 하면서 대신 한문 교육을 차츰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국내역사는 11종으로 학부에서 편찬 간행한 도서 중 가장 많은 종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국가에서도 중시한 것으로 보이며, 외국역사는 서양의세가 도래하고 개화를 몸부림치던 시기였으므로, 일본의 침략야욕에 대하여 외국의 역사를 교훈삼아 그 방안을 모색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국내지리는 우리나라의 도를 나누고 지형도, 산맥도, 길의 종류, 특산물, 인구, 인종 등을 나누어 설명하는 등 우리국민들의 자주권확보와 애국심배양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외국지리는 세계지리를 통해 자국 중심적 세계인식의 틀에서 벗어나 외국사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얻어 세계관을 정립하려고 하였다.

국내지도는 우리나라의 도와 군읍, 리정 등을 상세히 표기하였고, 특히 울릉도의 뱃길과 거리를 표기하고 있어 당시에 비교적 정확한 지도가 간행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외국지도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식민지 표시와 당시의 중요시 했던 국가들을 주축으로 지도에 국기가 그려져 있는 것 등으로 봐서 학부에서 간행한 외국지도는 정치적인 성격을 많이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학부에서 편찬 간행한 도서의 주제와 내용은 각 분야에 망라되어 있어, 그 범위는 현재와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도서 가운데 수신과 역사, 지리 등이 타부분에 비해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시대의 정치적 배경이나 여건이 그대로 교육이나 도서에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5.2 形態別 特性

형태별 특성은 간행방법과 사용된 용지 및 장정, 간행상황 등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학부도서의 간행방법은 활자본이 84.1%로 가장 많았으며, 목판본(9.5%), 석판본(1.6%), 기타(4.8%) 순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학부 편찬 간행 도서의 판종 상황을 표로 작성하면 <표 12>와 같다.

<표 12>와 같이 활자본이 84.1%로 대부분이었으며, 다른 간행방법은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와 같이 학부 편찬 간행도서는 대부분 활자본으로 인출되었으며, 그중 신연활자본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대한제국말기에 외국에서 신연활자가 도입되어 책을 찍어내기 시작하여 점차로 근대 인쇄방법이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활자본 중 정리자본은 대체로 사주단변, 무게, 10행21자, 상흑어미였으며, 운각인서체자본은 사주단변, 무게, 10행22자, 이엽내향어미로 나타났고, 목활자본은 사주단변 유계, 10행20자, 상이엽화문어미였으며, 신연활자본은 대체로 사주쌍변, 무게, 자수부정, 무어미로 나타났다. 목판본은 대체로 사주단변, 무게, 자수부정, 무어미였으며, 석판본은 사주쌍변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판종에 따른 판식의 경향을 표로 작성하면 <표 13>과 같다.

용지 및 장정은 한지 한장본이 38%로 가장 많았고, 양지 한장본은 14%, 양지 양장본은 35%, 기타 13%로 나타났으며, 지도는 면지, 장지, 저지, 죽지 등이 간행연도와는 상관없이 골고루 사용되었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부 편찬 간행 도서들의 용지 및 장정의 연도별 추이를 표로 작성하면 <표 14>와 같다.

<표 14>와 같이 학부 초기에는 대부분의 도

<표 12> 學部 編纂 刊行 圖書의 版種 狀況

種類	活字本		木版本	石版本	實物未發見	計
種	53種	整理字本 5種 芸閣印書體字本 1種 木活字本 12種 新鉛活字本 35種	6種	1種	3種	63種
%	84.1		9.5	1.6	4.8	100

<표 13> 學部 編纂 刊行 圖書의 版種別 版式 傾向

版種	板匡	界線	行字數	魚尾
整理字本	四周單邊	無界	10行21字	上黑魚尾
芸閣印書體字本	四周單邊	無界	10行22字	二葉內向魚尾
木活字本	四周單邊	有界	10行20字	上二葉花紋魚尾
新鉛活字本	四周雙邊	無界	字數不定	無魚尾
木版本	四周單邊	無界	字數不定	無魚尾
石版本	四周雙邊			

〈표 14〉 學部 編纂 刊行 圖書의 用紙 및 裝訂의 年度別 推移

年度 用紙, 裝訂	1895	1896	1897	1898	1899	1900	1902	1905	1907	1908	1909	1910	其他/ 未發見	計	%
韓紙 韓裝本	12	6	2	1	2		1							24	38
洋紙 韓裝本				2	2	1	1	2		1				9	14
洋紙 洋裝本						1	1		3	5	6	6		22	35
其他/未發見													8	8	13
計	12	6	2	3	4	2	3	2	3	6	6	6	8	63	100

* 其他/未發見 8종은 지도 5종, 미발견 3종임

서들이 한지 한장본이었으나 1898년 《中日略史合編》이 학부에서는 처음으로 양지를 사용하였으며, 제본은 한장본으로 하였다. 이후 약 2-3년간 양지 한장본과 한지 한장본이 섞여서 사용되다가 1900년 《淸國戊戌政變記》에 처음으로 양지 양장본을 사용하였으며, 1908년 이후에 간행된 도서는 모두 양지 양장본이었다. 학부에서 사용된 전체도서에 대한 용지는 한지가 24종, 양지 31종, 기타 8종이었으며, 지도는 綿紙, 壯紙, 楮紙, 竹紙 등을 골고루 사용하였다. 이것으로 볼 때 간행연도와 용지의 사용은 시기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지도자료의 용지는 간행 연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행된 도서 중 번역서는 6종이었으며, 외국 역사 2종, 외국지리 2종, 법률 1종, 생리 1종 등으로 주로 외국과 관련되는 도서들이었다.

또 학부 외 다른 기관에서 인쇄한 것은 11종이었으며, 이것들은 대체로 학부 후기인 1908년 이후에 간행되었으며, 외부기관에서 인쇄된 것 중에서도 《國語讀本》의 경우에 권1은 한국정부인쇄국, 권2-8은 대일본도서인쇄주식회사에서 인쇄되었다. 도서의 페이지는 절반 정도인 32종이 1책본으로 간행되었으며, 이 책들은 14장의 소규모에서부터 286장까지로 일

정하지 않았으며, 지도는 대부분 1장으로 간행되었다.

5.3 時期別 特性

학부의 존립기간이 약 16년으로 비교적 짧았지만 도서 간행에 영향을 준 만한 사건들은 많았다.

1894년 갑오개혁을 계기로 학부가 설립되었고, 1905년 을사조약으로 인하여 일본인이 진출하여 교과서의 자주적인 출판이 단절되었으며, 1906년 일본통감부가 학부쇄신 확장비인 도서 편찬 경비로 차관 50만원을 제공하면서 6종(수신, 국어, 일어, 한문, 이과, 도화)의 교재를 개발하도록 지시하였다.

1908년에는 교과서검정규정 및 인가제도 등으로 인하여 교과서 내용에 대한 사전검열을 받았으며, 1910년 경술국치로 학부가 폐지되었다.

간행종수와 주제는 학부 전기(1895-1905)에 42종이 간행되었으며, 수신, 산술, 국어, 역사 관련이었고, 학부 후기(1906-1910)에는 21종이 간행되었으며, 수신, 경제, 교육, 예술, 국어, 일어, 한문 관련이었다.

이것을 각 연도별로 구분하면, 학부 초기인 1895년에 12종으로 제일 많이 간행되었고, 1896

〈표 15〉 學部 編纂 刊行 圖書의 時期別 刊行種數

年度	1895	1896	1897	1898	1899	1900	1902	1905	1907	1908	1909	1910	計
種	12	11	2	3	5	3	4	2	3	6	6	6	63
%	19	17.4	3.2	4.8	8	4.8	6.3	3.2	4.8	9.5	9.5	9.5	100

년에는 11종이 간행되었으며, 그 외 연도에는 미약하게 간행되다가 1905년 11월 을사조약이 체결되어 일본인이 학부의 도서 간행에 참여하게 되면서 1908년부터는 다시 간행종수가 늘어나게 되었다. 학부에서 편찬 간행한 도서의 시기별 간행종수를 표로 작성하면 〈표 15〉와 같다.

〈표 15〉와 같이 1901년과 1903년, 1904년, 1906년에는 한 권의 책도 간행되지 않았으며, 1908년부터는 학부 편찬 교과서 간행 종수가 늘어났다. 이것은 1906년에 일본 통감부로부터 차관 50만원을 받은 것과 1908년 공표된 교과서검정규정 및 인가제도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교과서 내용의 사전 검열이 어우러지게 되면서, 애국 계몽적 성격의 교과서가 발매금지 처분을 받은 대신, 일본의 구미에 맞게 씌어진 학부 편찬 교과서가 각 학교의 교과서로 채택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6. 結 論

이상 대한제국시대 학부의 도서편찬 및 간행에 관한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에서 편찬 간행한 도서의 주제와 내용은 종교와 문학 분야를 제외하고는 각 분야에 망라되어 있어, 그 범위는 현재와 대동소이 하였으며, 현재까지 밝혀진 도서의 수는 모두 63종이었다. 그 중에서도 수신과 역사, 지리 등

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현저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둘째, 학부의 도서 간행종수는 연도별로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 초기인 1895년에 12종으로 제일 많았으며, 다음해인 1896년에는 11종이었으며, 이후에는 급격하게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1905년 11월에 을사조약이 체결되어 일본인이 학부의 도서 간행에 참여하게 되면서, 1908년부터는 다시 간행종수가 늘어나게 되었다.

셋째, 판종은 활자본이 84.1%로 대부분 활자본으로 인출되었으며, 그중 신연활자본이 35종으로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대한제국말기에 외국에서 신연활자가 도입되어 책을 찍어내기 시작하여 점차로 근대 인쇄방법이 확산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용지 및 장정은 학부 초기에는 모든 도서에서 한지 한장본을 사용하였고, 1898년부터 1907년까지는 한지와 양지, 양장본과 한장본이 섞여서 사용되었으며, 1908년 이후부터는 모든 도서에서 양지와 양장본을 사용하였다.

다섯째, 도서의 가격은 당시의 쌀값 등 생필품 가격과 비교해 보았을 때 지금의 도서가격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가격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연도가 최근으로 올수록 가격이 약간 저렴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출판기술의 보급으로 인하여 대량생산이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섯째, 학부에서 편찬 간행한 도서 중 번역서는 6종이었는데 그 중 법률, 생리 각 1종, 외국역사, 외국지리가 각 2종이었고, 학부 외 다른 기관에서 인쇄한 것은 11종이었으며, 대부분 1908년 이후에 간행된 것이었다.

이상과 같이 발견된 63종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였다. 이것이 그 당시의 학부에서 편찬 간행된 전체 도서의 완전한 파악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학위논문 작성이후에도 여러 기관의

목록탐색 등을 통하여 후속작업을 펼치고 있으나 진전된 내용이 없어 계속하여 새로운 자료를 찾아내어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아직 연구되지 않은 대한제국시대 학부에서 편찬 간행된 도서들을 조사·분석하여 형태적 특징 및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이것은 학부에서 편찬 간행한 도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로서 이후 관련 연구에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康允浩. 1973. 『開化期の 教科用圖書』. 서울: 教育出版社.
官報. 1906. 第3518號.
國史編纂委員會. 2004. 『沈遠權日記』. 果川: 國史編纂委員會.
金斗鍾. 1974.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探求堂.
김봉희. 1999. 『한국 개화기 서적 문화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金容和. 1990. 『우리나라 教科書制度 變遷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淑明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南權熙. 1989. 學部編輯局書冊目錄考. 『慶北大 社會科學研究』, 5: 113-134.
박봉배, 이승구. 2001. 『한말 및 일제강점기의 교과서 목록 수집 조사』. 서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백순재. 1970. 開化期の 韓國書誌. 『東方學會誌』, 11: 179-224.
백운관. 부길만 공저. 1992. 『한국 출판문화 변천사』. 서울: 타래.
윤성희. 2005. 『한국 근대 도서의 장정 구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대학원, 산업디자인학과.
이종국. 1987. 『韓國의 近代教科用圖書 成立過程에 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全南大學校 教育大學院.
이중환 외. 2001. 『우리출판 100년』. 서울: 현암사.
丁義聲. 1990. 開化期の 教科書刊行과 그 主題에 대한 考察. 『光州大學校 論文集』, 7: 39-55.
千惠鳳. 1990.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汎友社.
전혜봉. 2006. 『한국 서지학(개정증보 2판)』. 서울: 민음사.

- 최 준. 1963. 韓帝國 時代의 出版研究. 『中央大學校 法政論叢』, 17: 7-24.
韓國教育史研究會. 1984. 『韓國教育社』. 서울: 教育出版社.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교육사료집성』.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皇城新聞. 1910. 第3434號.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cademy of Korean Studies, 1991. *The Collection of Historical Materials of Korean Education*. Seongnam: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Cheon, H. B. 1990. *Korea History of Printing*. Seoul: Bumwoosa.
- Cheon, H. B. 2006. *Korean Bibliography, a revised and enlarged edition (Second Edition)*. Seoul: Minumsa.
- Choi, J. 1963. "A Study of Republication in Old Korean Empire." *College of Law Chung-Ang University*, 17: 7-24.
- Jung, U. S. 1990. "A Study on the Publication and Subjects of Textbooks During the Incipient Stage in Modernization Age in Korea." *Journal of Gwangju University*, 7: 39-55.
- Hwangsung Newspaper. 1910. No. 3434.
- Kang, Y. H. 1973. *Educational Textbook during the Enlightenment*. Seoul: Educational Publisher.
- Kim, B. H. 1999. *Study on Korean Reading Culture during the Enlightenment*.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 Kim, D. J. 1974. *History of Korean Printing Technology*. Seoul: Tamgudang.
- Kim, Y. H. 1990. *A Study on the Changes of the Text Book Systems in Korea*. M.A.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ook Myung Women's University.
- Lee, J. G. 1987. *A Study on Process of Establishment for Korean Modern Curriculum Books*. M.A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Lee, J. H et al, 2001. *Korea Publication for 100 Years*. Seoul: Hyeonamsa.
- Nam, K. H. 1989. "A Study of the Catalog in Kakbu-Pyunjipjuk." *The Institute for Social Science Research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5: 113-134.
-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2004. *Journal of Won-gwon Sim*. Gwacheon: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 Official Gazette. 1906. No.3518.
- Organization of Korean Educational History. 1984. *Korean Educational History Educational*

History. Seoul: Educational Publisher.

Paek, S. J. 1970. "Modern Korean Books and Bibliographies."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11: 179-224.

Peak, U. G. and G. M. Bu. 1992. *Changing History of Korea Publication Culture*. Seoul: Tarae.

Park, B. B and S. G. Lee. 2001. *A Study of the Educational Textbook List in the Late Korean Empire Government and in the Japanese occupation*. Seoul: Korea Textbook Research Foundation.

Yoon, S. H. 2005. *A Study of binding Design of Modern period Korean Books*. M.A.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Dept. of Industrial Design.